

전남 초·중·고 36년간 절반 사라졌다

농촌 인구 감소로 학생수 급감 1709→887곳으로 줄어 42%는 통폐합 대상...작은 학교·공동학구제도 효과 미흡

지난 36년간 전남지역 초·중·고교 절반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학생 수도 90만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2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농촌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 감소→폐교 급증 및 소규모 학교 증가→교육질 등 농촌 생활 여건 하락→농촌 유입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해소되기는커녕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통폐합과 '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작은 학교 만들기,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을 도입했으나 역부족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1982년 초중고 1709개교→2017년 887개교=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학교는 지난 1982년 초등학교 1239개교, 중학교 308개교, 고교 162개교 등 1709개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남아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489개교, 중학교 256개교, 고교 142개교 등 887개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학생 수 역시 88만1922명에서 20만210명으로 대폭 줄었다.

농촌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전남의 경우 시(市)나 읍(鎭) 소재지가 아니고서는 학교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초·중·고교의 41.9%인 372개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내지 통폐합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만한 특단의 조치 및 상황 변화가 없다면 수년 이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학교 폐교는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원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 마을 주민, 동문, 교육당국간 갈등도 적지 않다.

◇학교 사라지면 사람도, 마을도 사라져... 대안없나=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를 막고 소규모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을 도입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는 학생 수 60명 이내의 작은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다. 독서토론교육, 기초기본학력향상교육, 특기적성교육, 진로교육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생과 학교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해 초·중·고교 290곳, 9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총 9억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일정부분 농도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자체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의 진학(취학, 전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나주시 노안면에 위치한 노안초는 지난해 전체 학생 수가 37명에 불과했으나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해 인근 도심에서 17명이 전학을 오면서 학교가 활기를 띠고 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당국이 아닌 동문이나 마을 공동체가 나선 곳도 있다. 고흥점암중앙중의 경우 총동문회가 2년 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학교 살리기에 인간 힘을 쏟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버스승강장 봄 단장 광주시 북구 임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통장단들이 7일 무등경기장 남쪽 버스승강장에서 겨우내 묵은 때를 청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 해질 18:34 | 달 뜨기 ---:-- | 달 지기 10:47

요란한 봄비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동반한 비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기온	날씨
광주	3/5	흐리고 비
목포	2/4	순천
여수	5/7	영광
나주	2/5	진도
완도	4/6	전주
구례	4/5	군산
강진	3/6	남원
해남	2/5	홍산도
장성	2/5	호리고비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5~3.0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3.0	북~북동 3.0~4.0
남해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북동 1.5~3.0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2.0~3.0	북동~동 3.0~4.0
남해 앞바다(서)	북~북동 2.0~4.0	북~북동 3.0~5.0

생활지수	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기온	1/11	-1/11	0/13	2/14	3/15	5/16	6/16

광주 시민단체 “5·18재단 폐쇄적 운영”

광주시민단체들이 최근 선임 이사장을 선임한 5·18기념재단의 폐쇄적인 조직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광주진보연대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5·18재단은 이사장 선임과정을 밀실에서 진행, 결국 폐쇄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광주시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시민단체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5·18재단은 자체 혁신안조차도 지치지 않았다”며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임이사 선임 절차도 잠깐이라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재단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기본재단(기금) 운영·직원 채용업무·직원처우개선 소홀·지방보조금사업 집행 등을 부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이사장, 상임이사 동반 사퇴 등을 요구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안 철회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리빙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반 교육적 정책을 계승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잠금이 선거, 시도지사와 교

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른 갈등문제를 들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은 줄여나갈 문제점이 주민주권부터 선거권을 빼앗자는 논의로 연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교육감을 지명하면 교육감이 일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게 돼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되찾아온 역사를 가진 ‘주민 직선’은 여전히 우선되고 강조돼야 할 권리”라며 “김동철 의원과 이에 동조한 박주선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

세월호 모형 실험하고도 4년간 은폐

선제조사위 보고서 입수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형 선박을 이용한 ‘자유 항주’ 실험을 하고도 이를 4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는 “최근 해수부 산하 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2014년 작성한 자유항주 실험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선조위에 따르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검찰이 이 연구소에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 보고서’를 의뢰했다. 당시 연구소는 컴퓨터를 이용한 운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모형 선박을 만들어 침몰 당시 운항 상황을 재현한 ‘자유항주’ 실험 내용은 넣지 않았다. 선조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연구소는 자유항주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4년 동안 실험 사실을 은폐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조위는 지난 1월부터 네덜란드에서 자유항주 시험을 진행,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자유항주 실험을 통해 선박 사고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재현할 수 있어 침몰 원인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고 때문이다. /김현영기자 young@연합뉴스

수피아여고 ‘3·1절 만세운동’ 10일 재개

예산 문제로 지난해 행사 생략...실제 운동일에 치르기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매년 열리는 3·1절 만세운동이 올해부터 3월 10일에 진행된다. 행사주관단체와 광주지방보훈청은 1919년 3·1만세운동이 광주에서는 실제 3월 10일에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제 날짜에 치르기로 했다. 7일 광주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추진위원회(추진위), 광주보훈청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피아여고등학교 일원에서 광주3·1만세운동 99주년 기념 ‘광주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만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명 이상)

이사약력 | 전남대 지질학과 졸업,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